

욥의 신앙과 全人經營

박창식(고신대) / 김창열(동명대)

1. 서론

욥은 우스¹⁾ 땅에 살았던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고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욥1:1-3). 그러나 사탄의 시험으로 기축과 10명의 자식을 다 잃고 몸에는 심한 피부병이 만연하였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2:1-10). 이때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 위로를 하며 이러한 경영위기의 근원을 찾고자 욥과 대화를 하였다.

친구들은 위기의 근원을 욥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욥은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변론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후는 욥의 변론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며,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임을 지적하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욥의 변론속에 나타난 잘못을 지적해주시자, 욥은 회개하였다(42:6). 그리고 욥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던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을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었다. 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도 낳게 하셨다.(42:10-17)

욥은 주위의 조직 환경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있는 경영을 실천하였다. 그것은 그가 처한 경영 조직에서 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었으며, 자기의 세 친구와의 논쟁에서 의로운 실천적 경영 때문에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행복과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을 묘사한다. 이런 욥의 묘사를 통한

1) ① 우스란 성경속에 나오는 세사람의 이름인데 ①아람의 아들이며 셈의 손자(창10:22-23), ②나홀과 밀가의 아들로 부스의 형(22:21), ③에돔 땅에 거하던 호리족속 디산의 아들(36:28), 이 3명중 하나가 팔레스타인 동쪽의 어떤 지역이나 아라비아의 한 경계지점에 정착했고, 이후 그곳은 “우스의 땅”으로 알려졌으며 멀지 않아 욥이 태어난 곳으로 유명해졌다.

② 욥의 고향으로 팔레스타인의 동부, 아라비아 북방의 한 지방이나 혹은 하란 근처 울파로 주장되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고 있음(렘25:20)

자신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보통사람으로서 겪는 일상사로, 필자는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이를 고찰하기로 한다. 욱기29장 이하의 3개 장은 그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모습과 이에 대응해서 사회적 계층 하락과 멸시에 대해 서술되고 있고, 소위 무죄 맹세(an oath of innocence)라고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충실했던 규범과 자신이 무죄임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주장하며 동시에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내어놓는 그의 도전적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조직사회에서 그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symbol)가 인정받던 모습과 이에 상응해서 사회적 계층 하락과 멸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가 살던 당시의 사회는 산업사회가 아닌 농경사회로서, 소위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이루었던 것도 아닌데 순수히 농업자원만으로 그 자연적 과실을 축적하여 그 당시의 재테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순수히 그의 인격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욱의 신앙 중 인격적인 측면과 그가 동방의 재력가로서의 부에 대한 재무관리적 측면을 성경에 입각한 경영관리의 내용을 음미하여 현실경영의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

II. 욱의 신앙관리

1.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

욕의 신앙에 대해서는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의 대강을 알 수 있다.

(1) 친구들의 오류적 변론을 간파(看破)

욕기 2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는 그의 친구들이 첫 번째 변론을 끝마칠 때 거기에는 소원하고 하나님이 욱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인간은 타락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가 별레나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고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친구들과 동일하게 보아왔던 그의 눈이 갑자기 크게 열리며 친구들이 고백한 우정에 대한 욱의 첫번째 불평은 그 우정이 가식적(假飾的)이었다는 것이다. 욱이 그 친구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충실하지 않았으며, 그가 곤경에 처해 있음에도 우정은 마치 그들의 이웃을 위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우정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적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욱은 즉시 우정의 동기를 통찰하게 되며,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욱을 버리고 있

2) Walt w. Rostow 교수는 경제의 양적 성장과 구조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5단계에 걸쳐서 경제발전의 단계를 구분하였는데 특히 ‘이륙을 위한 준비단계’는 17· 8 C 의 서유럽이 이 단계에 해당되며, 수공업이 주산업으로 특히 이 시기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며, 이것은 공업발전으로 형성되는 자본을 말한다.

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 통찰력을 발전시켰음은 보통의 신앙인들이 감히 소유하지 못할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로 인식 할 수 있다.

(2) 욥의 신앙의 성실성

이기적 동기를 가진 친구들의 말에 대한 지지를 모두 접고, 희망을 포기한 채 현재 처해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감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견지한다. 욥이 믿기에는 이것은 그의 신앙의 성실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의 간원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어느 것 하나라도 욥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심의 의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는, 그리고 13장 20~21절의 내용에서 어떻게 욥이 하나님에 의해 상정된 경영관리의 부당한 질서를 조정(coordinating)하기 위해서 그의 수중에 하나님을 개입시켰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현재 그가 중재자(arbiter) 없이 중재자가 소유할 특권을 청원하고 있다. 그 자신의 주장을 경청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로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그의 고상하고 뛰어난 신앙의 성실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신앙은 처음에는 두가지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였는데, 하나는 동호자에 대한 신앙으로 이것은 이미 제창되었고 현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향(X-theory)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Y-theory)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후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이것은 여기서 시험적이고 잠정적인 동일한 방법으로 발생한다. 즉 처음에 잘린 뒤에 다시 싹이 트는 나무의 비유와, 물이 마르고 산들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비유로부터 그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 방향으로 회귀하게 된다.

2. 뛰어난 신앙적 인간성의 소유자

(1) 인간성의 문제

욥은 그의 친구들로부터 모호한 질문을 받고 원래의 사실들에 대해서 몇 가지 긍정적인 해결책을 추구한다. 그는 자신의 성실성과 엄숙한 맹세에 의한 보증, 악한 자에 대한 동정을 거부하며 그의 답변을 시작한다. 23장의 내용을 보면, 욥은 그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하고 귀중한 것들이 순금으로 나타날 시금(試金)을 위해서 시련을 받는다.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 보석) 속에서 나타난 그의 인간성은 자신의 전유물이 아니다. 악한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그의 친구 소발의 세 번째 연설로 생각하고 친구들이 보았던 모든 것을 27장 12절에서 재설명 하는 가운데, 그는 진정한

3) 「Wealth of Nation」의 저자 A. Smith는 “Smith’s paradox”를 통하여 C. Menger J. S. Mill의 한계효용 이론의 불완전성을 역설하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과 공기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지만 존재량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 낮고,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인간에게 불요불급한 재화이지만 존재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계효용이 높다는 효용이론의 무의성을 역설적으로 공격한 바 있다.

의미의 악한 자를 설명한다. 그 설명의 요체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 또는 영원한 소망의 평화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친구들의 비난과 같은 어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외적 재앙으로부터 성벽(性癖)과 무익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금광석은 고귀한 시금을 위해서 정련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바로 그들의 회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28장에서 지혜에 대한 요약이 등장한다. 동기(動機)에 대한 이러한 모든 시험 후에 본래대로의 것 기본적인 것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의 역할은 욥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피하는 것이다.

(2)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욥기서에는 많은 목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 목적들과 관련성이 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고통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괴롭히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대답에 바로 욥 자신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의 본질적 성실성에 궁극적 증명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의와 부당한 고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관리하심(management)보다 인간의 본질적 본성과 더 깊이 관련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 하셨을 때 인간에게 상업주의 정신(Handelswissenschaften)이나 매수되지 않는 충성심의 정신(Advocateship)을 부여 하셨는가? 그리고 피조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그것은 불가피한 선천적 타락을 의미했는가? 또는 최후로 고귀한 인간성(humanity)의 잠재성이 인간 존재의 중심에 남아 있었는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를 압도한다.

III. 욥의 人間管理

1. 존경받는 리더십의 소유자

욥기 29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욥이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과거에 욥이 누렸던 특별한 지위와 영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가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앞을 지리를 내주었는데(7절), 이 곳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되던 곳이다. 여기서 욥이 그렇게 존경과 높임을 받았다면 과거에 욥이 누렸던 명성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욥에게 예우를 갖추었다고(8절) 본문은 서술하고 있다. 나이 든 사람들도 경의의 표시로 욥 앞에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지역 유지나 귀족들도 욥 앞에서 입을 가리고 잠잠했다(9-10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욥의 인격관리가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알 수 있다.

특히 “허가 입천장에 붙었다”라는 표현은 그의 인격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할 말을 잃음으로써 욱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자리를 내주고 욱 앞에서 침묵함으로써 그가 인격적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에서 욱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언행 중 말미에서 그가 경영 조직체 내에서 얼마나 존경받았던가가 다시 나온다. 이 부분은 30장에서 그가 현재의 상황을 탄식하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극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욕은 조언이나 어드바이스를 하는 경우 최종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모든 조직체가 그의 말에 경청하였고 그가 말할 때는 모두가 잠잠했으며(21절), 특히 그가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아무도 이론적 시도를 달지 않았으며, 그의 언어는 이슬과 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22절). 모든 조직이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으며, 그의 말은 조직 전체에게 기쁨에 단비와 같았다(23절)는 표현을 볼 때, 욱이야말로 탁월한 관리자적 자질과 리더십을 동시에 가진 경영자라고 볼 수 있다. <표> 참조

<표> 관리자적 자질과 리더십의 비교

관리자적 자질	리더십
efficiency	variety(variation)
present orientation	future orientation
planning, budgeting	vision
organizing, outsourcing	aligning for vision
control, solve of problem	motivation
tranquility	challenge
scientific	artistic

자료 : 경영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필자가 작성

욕은 믿음없는 자들에게 웃음으로 희망을 주었으며, 욱을 둘러싼 주위 환경 조직은 그의 행동을 잘 수용하여 용기를 얻었다. 그는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서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였으며 따라서 그는 단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조직에 대해서 동기부여(motivation)와 의욕을 고취시키는 참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영조직에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누렸다. 그것은 억지로 주장한 것이 아니었고 공의(公義)와 자비(慈悲)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⁴⁾

4) 하경택, 욱이 이전에 누렸던 번영과 행복, 서울장신대학교, 그 말씀, pp14~21, 2007.6

2. 관계 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의 실천자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서 욥은 과거에 자신이 번영을 누렸던 근거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와 함께 함이었다고 토론하였다. 자기의 번영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요의 원천이라고 고백하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relation to God) 속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였다.⁵⁾

따라서 욥은 장기적으로 자기에게 공헌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은 고객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 판단하여 탐색하고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를 맺고자 하였다면 필자의 지나친 주장일까? 여하튼 욥은 지속적인 고객관계 구축에 가장 알맞은 표적시장(target market) 선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욕의 번영(prosperity)이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상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한 겸손과 지혜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만하지 않았고, 일이 잘못 되었을 때에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탓이오”의 경영철학을 몸소 실천하였다.

3. 존재됨(being)으로서의 인격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하신 지도자가 어떤 특별한 인격을 갖춘 인물임을 알 수 있고, 그 공통점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다른 어떤 요인보다 그 사람이 지닌 사람 됨됨이 즉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것을 필자는 “존재됨으로서의 인격자”라 부르고 싶다. 하나님은 일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지닌 천성적인, 그리고 성장하면서 갈고 닦여진 후천적인 인성(人性)을 가진 인물을 인격자로 지칭하며, 특별히 “존재됨으로서의 인격자”로 지칭함을 알 수 있다.

본문의 2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서 욥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가난한자, 고아, 과부를 도왔으며,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도움을 받은

5) 현대의 경영현상은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래중심(transaction oriented)의 마케팅 환경에서 관계중심(relation oriented)의 마케팅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객들은 점차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품질, 서비스, 그리고 혁신 등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을 병행해야만 한다. 관계마케팅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알맞은 개념으로서 신규고객을 창출하는데 비중을 두기보다 오직 기존고객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둔 전략지향적인 일종의 경영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기존관계 선호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그들의 가치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여러 서비스 기업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전환하기보다 하나의 고정된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선호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박창식 저, 병원마케팅의 이해, 대학서림, 2007.3, p.33)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돌려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가 행한 경영관리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필자는 욥이야말로 존재됨으로서의 인격자(high character as a being)라 지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또 소경에게 눈이 되었고 절름발이에게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생소한 자에게도 도움을 베풀었다. 악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하는 악인들과 맞서 싸웠으며 맹수와 같이 공격하는 악인들을 저지하여 악한 자들을 구해냈는데, 이런 사실은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비난했던 말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의 공통적인 특성인 존재됨(being)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존재됨(being)을 지녔다고 모두 똑같은 스타일의 인격적 지도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 다양한 형상과 모양(창1:26)⁶⁾을 따라 독특하게 창조하셨으며 나뉠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하셨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인격자들의 유형이 특별하면서 다양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바울, 베드로, 요한, 도마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은사(특이성, 다양성)를 발견하고 이것을 모든 관리 영역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경영인(비영리 경영체 포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IV. 욥의 재무 관리

1. 신약에 있어서의 초대교회의 富의 개념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부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교훈을 반영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에서 소유물의 분배에 관한 기사에 나타나 있다. 이 공동분배 행위는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적”은 아니었고⁷⁾, 다만 초대교회인들의 상호간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곧 돌아오기를 희망적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 온힘을 바칠것을 표현한 것이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을 하되 자신들의 요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주로 많이 가진지(부유

6) 형상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뜻하는 반면, 모양은 외적인 모습이나 형태(form)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은 끊임없이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는데 초기의 개혁주의자들 가운데는 형상(히, 쉘렘)과 모양(히, 데무트)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갖추고 있었으나 범죄로 말미암아 모양을 상실하고 형상만 남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하나의 신적과제(神的課題)로 보았다.

7) K. Marx는 그의 主著 「capitalism」에서 상품의 가치가 원재료와 노동 즉 이론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피력했다. 노동의결과인 노임(임금)의 대부분을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부르조아 계급)가 착취하고 그 중 일부분 만 노동자에게 지급된다고 하였다. 노임의 대부분의 착취당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프로레타리아 계급)은 부르조아 계급에 대하여 늘 원한을 품고 혁명세력을 규합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키고 살기좋은 사회주의 사회를 세운다고 하였다.

층)가 적게 가진자(빈곤층)들을 돕도록 하라고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에서 권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며 이들은 물이 흐르듯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야고보서에서는 부자에 대하여 아첨하는 칭찬과 경의를 표함을 한탄했다. 이러한 태도는 영락없이 교회의 우정의 유대를 파괴시키며(약2:1-7), 또 의심스러운 수단으로 재물을 모아서 사치스럽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을 엄중히 경계한 것을 볼 수 있다⁸⁾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이 있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라고 훈계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기 때문에(딤후전6:8-9) 후한 자들은 교만하거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라”(딤후전6:17)고 경계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가 가 있는 곳을 음부(음17:13)로 묘사하셨는데 이것은 무덤등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2 구약에서의 부(富)와 옳기

구약에서 부는 반드시 동의적인 용어 “풍부(riches)”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 “부”와 “풍부”는 모두 재산(토지, 건물, 농업용품, 가축, 노예 등), 곧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널리 보급된 기본적인 농업경제 용품의 풍부함을 가리킨다.⁹⁾

부에 대한 구약성경의 태도는 대체로 종교적인 이해에 따라 정해진다. 여호와께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이시므로 만물이 모두 여호와께 속해 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께의 것이로다.”(시24:1)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주신 분은 여호와였다. 여호와께서는 개인 개인에게 부로써 복을 주셨는데, 그 중의 주요한 예는 아브라함과 솔로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고정자산(토지)의 부를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신8:17)며 만용을 부렸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땅과 부를 빼앗기고 유배되었다. 그러나 충실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부까지라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언약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사45:14) 부와 풍부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가 될 수도

8) 이에 대한 응보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며(약5:1-6), 이 날에 “입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9) “부”는 히브리어 “훈”과 “하일”의 번역어로 “기능”, “능력”, 또는 “세력”을 의미하고 은유적으로 부를 뜻한다.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서 알 수 있는 증거(有形財)와 타인에게 넘겨 줄 수 있는 세력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일체의 無形財 예: 聲價(good will)]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욥기에서는 선(善)은 부를 가져오고 악함은 빈곤을 초래한다는 勸善懲惡의 견해를 비교적 부정하고 있다. 시편 여러 곳에서는 “부”는 “악함”과 같은 뜻이고, “가난함”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이란 말이 종교적 용어로 이해되었지만 이것은 유배기 후의 유대에 있어서의 경제적 지위를 반영한 것으로써, 이 때에는 점점 세속화(또는 헬라화)되는 자들에게 부가 날로 집중되었으며 특히 제사장과 같은 귀족사회가 그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정을 친히 변명해 주시었고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처지에서 완전히 반전(反轉)되기를 바라기까지 했다. 잠언에서 보여주는 부에 대한 태도는 매우 신중한 면을 보이는 데 즉, 풍부함이 사람의 근면의 보상이며(잠10:4), 안전의 근원이고(잠8:11),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며(잠13:8), 친구를 얻는다(잠19:4)고 묘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22:1). 재물을 갈망함은 사람을 욕심쟁이로 만들며(28:22),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만들며(28:11), 건방진 자로 만들며(18:23), 종국에 가서는 재산을 잃게 되는 것(13:11)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위기에 대처한 욥의 재무관리

욥은 자식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을 동시에 받은 인물이다. 자식은 남자가 일곱에 여자가 셋으로 10남매와 처를 거느린 가장이요, 재산(소유물)은 양이 칠천, 약대가 삼천, 소가 오백여리, 암나귀가 오백이 있으며 종도 많이 거느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 종(노예)의 경우, 테베(Thebae)의 유적¹⁰⁾에서 발견된 「도망간 노예를 찾습니다.」의 문구를 보면 노예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당시의 금화 한개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예가 사고 피는 매매의 대상이었다면 당연히 욥 당시에도 응분의 자산의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상기 목축을 위한 엄청난 임야와 토지가 소요되었을 것이고, 이를 양육하기 위한 엄청난 농지의 소유는 가히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재물의 소유자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욥의 고향 우스 땅은 블레셋, 에돔, 암몬 등지로 예레미아 25:20에 언급되어 있으며, 예레미아가 4:21에서는 에돔이 우스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욥을 동방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욥기 1:3을 근거로 해서 볼때 우스지역은 에돔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 필자가 주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5절에서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자녀를 불러다가 아침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기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노심초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살려고 한 흔적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우리의 관행에서 속칭 돈많은 사람

10) 『노예가 도망갔으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예는 헛다이트인으로 이름은 샘이며, 신장은 5피트 2인치, 붉은색 얼굴에 갈색 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을 알려주시는 분에게는 사례로 금화 반개를 드리겠으며, 그를 찾아 데리고 오시는 분에게는 금화 한 개를 드리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주문에 보답하기 위하여 항상 최상의 실로 직물을 짜는 기술자 하프로 부터 —— 』

은 재물을 더 모으려고 한다는 말과 비교해볼 때 욥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기 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인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1:13에서 19절까지는 욥이 자녀와 재산을 동시에 잃는 우발적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 충격을 받는 장면이다. 이때에 욥은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기 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 갈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찌니이다” 욥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재무적 원천임을 경영위기를 당했을 때 오히려 고백하였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위기적 경영상황을 허락하신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난 가운데 욥의 신앙고백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다. “나의 가는 일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 23:10)고 욥이 고백한 내용에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는 온전히 소중한 것을 요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¹¹⁾

욥은 자신의 경영적 지혜나 미래를 통찰하는 자신의 현명함 때문에 재무적인 부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필자도 이견을 갖지 않는다. 이런 확신은 욥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위기경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

욥도 잠언의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부자가 되는 원리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언 10:22)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²⁾

V. 결론

본고는 욥의 신앙을 경영관리적 차원에서 살펴본 내용이다. 욥은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주위의 조직구성원들 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있는 경영관리적 주체였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상정된 경영관리의 부당한 질서를 조정(coordinating)하기 위해서 그의 수중에 하나님을 왜 개입시켰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뛰어난 신앙적 인간성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피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관리하심(management)보다 인간의 본질적 본성과 더 깊이 관련 된다고 볼 수 있다. 그가 고귀한 인간성(humanity)의 잠재성이 인간 존재의 중심에 남아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존경받는 리더십의 소유자 였으며 단순한 관리자적 자질과 동시에 리더십형의 경영관리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관계마케팅 실천자로서 고객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

11) 박창식, 김청열, 현대사회와 경영, 현대출판사, 2005

12) 박정윤, 아브라함의 신앙과 재무관리, 로고스 경영연구 제3권 제1호(통권6호), 한국 로고스 경영학회, 2005.5, p.7

계(relation to God)를 우선시함으로써 자신의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런 신앙의 실천자로서 옅은 인적인 축복과 재무적 축복을 동시에 받아누린 사람이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이유없는 고난과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러나 중국에 가서는 회개하고 이전과 같은 축복을 회복한다는 성경적 사실에서 재무적인 축복은 자신의 현명함이나 성실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곱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재산과 소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만물의 절대적 소유자로서 그분의 주권과 기쁘신 뜻에 따라 물질과 재산을 모든 인류의 필요(needs)와 욕구(wants)를 위해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¹³⁾

< 참고문헌 >

- 기독교사상연구소,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제4호, 1992.6, 1997.7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경영로드맵(II), (기독교경영의 이론과 실제),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9
김세열, 기독교경제학, 도서출판무실, 1992.4
김진홍, 성경의 경제와 경영, 출판사두레시대, 2002.2
대전덕신부, 헨리 조지 공저, 토지와 자유(성서의 경제원리), 생명의 샘터, 1987.4
육 존슨 저, 최태영 역, 소유와 분배(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성경적 대안) 도서출판대장간, 1990.7
막스 베버 저, 박상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1996.11
박창식 외 1명, 현대사회와 경영, 현대출판사, 2005.4
선봉호,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서출판나비, 1989.6
스즈키 시게요시 저, 임택진 역, 교회회계론, 기독교문사, 1987.4
앙드레 비엘러 저, 홍치모 역, 칼빈의 경제윤리, 성광문화사, 1985.12
윌리엄 B. 투르하트 저, 박두헌 역, 기독교인의 경제원리, 교회교육연구원, 1988.12
이동수, 기독교경제학, 현대출판사, 2003.8
이윤재, 성경속의 경제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4.5
제임스 사이어 저, 김현수 역,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1989.4
크라우스 보크무엘 저, 이종윤 역, 마르크스주의의 도전과 크리스찬의 응전, 정음출판사, 1983.5
통합연구학회, 통합연구(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연구), 1991.7
한국로고스 경영학회, 로고스 경영연구, 제2권 제1호(통권제3호) 2004.5
황봉환, 기독교 경제 윤리,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1
Bob Goudzwaard, Capitalism and Progress, Wedge Publishing Foundation Toronto, Canada
Shirley J. Roels, Christians and Economic Life, 1990.3

13) J. Calvin, Commentaries on the Last Four Books of Moses, Vol. I, trans by Charles W. Bingham (1852) p. 297.